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문무왕이 대왕암에 묻히고자 한 까닭은?

“동해 용왕되어 호국·호법하겠다”

1. 동해구와 대왕암

한국 미술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현 고유섭(1905-1944)은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偉蹟)을 찾으라. 구경거리의 경주로 쓰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정신을 가려보아라. 태종 무열왕의 위업(偉業)과 김유신의 훈공(勳功)이 크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은 문헌에서도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精神)이야말로 경주의 유적(遺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경주에 가거든 모름지기 이 문무왕의 유적을 찾으라”며 경주의 수많은 유적들이 국방(國防)적 경영이자 정경(政經)적 치적이 아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大王岩)을 찾으라.” 우현의 ‘경주기행의 일절(一節)’ 4장 ‘경주에 가거든’에 실린 글이다. 그는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을 더 없이 기리고 있다. 우현의 지적처럼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문무왕의 유언은 그의 ‘정신’의 지향의 의미일까, 아니면 그의 ‘무덤’의 사실을 의미할까.

문무왕은 살아서는 삼국통합을 위해 나라 격정을 늘 하였다. 그는 죽어서는 용이 되어(爲龍)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삼국사기>(권7)‘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조에는 “못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냈다. 「속전」(俗傳)에 왕은 돌아가시어 용이 되었으므로 그 돌을 가리켜 대왕석(大王石)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왕을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낸 것」[藏骨處]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이곳에 뼈를 뿌린 것이나」[散骨處]이다. 문무왕은 유조(遺詔)를 통해 “임종 열흘 뒤

“대왕이 나라를 21년 다스리다 영릉(永陵) 2년 신사년(681)에 봉어하자, 유조에 따라 동해 속의 큰 바위 위에서 장사를 지냈다[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왕은 평소에 늘 지의(智義)법사에게 ‘집은 죽은 뒤 나라를 지키는 큰 용[護國大龍]이 되어 불법(佛法)을 높이 받들며 나라를 지키고 싶소’라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였다. ‘용이란 죽은 응보인데 어찌 용이 되려 하십니까?’ ‘집은 세상의 영화를 염증을 느낀 지 오래요. 비록 추한 값을 받아 짐승이 된다면 집의 뜻에 맞는 것이요.”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동해 입구」[東海口] 즉 ‘곳집 문 바깥 뜰」[庫門外庭]에서 대왕의 장례를 치렀다면 바닷가 큰 바위 위에 매장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문왕은 바닷가 가까운 물에서 부왕의 장사를 치르고 바닷가의 큰 바위 위에 뼈를 뿌린 것이 분명하다. 이는 평소 죽어서 용이 되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뜻을 의식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2. 사증기의 이해

<삼국유사>(권2) ‘기이」 ‘만파식적」 조목에는 ‘절의 기록」[寺中記]를 환주(桓註)에 신고 있다.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사증기]에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바다의 용이 되었으므로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개요 2년에 끝마쳤는데 금당의 층계 밑에 동쪽을 향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즉 용이 이 절에 와서 돌아다니게 한 것이다. 유조에 따라 뼈를 묻은 곳이 대왕암이고 절의 이름은 감은사이며 용이 나타난 모습을 본 것이 이견대(利見臺)라고 하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의 호국 충정을 담고 있는 ‘만파식적」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권32) ‘약지」 편에도 실려 있다. “고기(古記)에서 이른다. 신문왕 때 동해에 출현한 작은 산이 나타났다. 모습이 거북머리와 같고, 그 위에 있는 대나무 한 줄기가 낮에는 갈라져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고 이름을 만파식(萬波息)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김부식은 만파식적 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문무왕이 ‘용이 되었다」[爲龍]는 주장은 점차 해중릉설로 발전하여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태어나기 5년 전에 신문왕의 태자 이흥(理洪, 理恭)이 부왕에게 와서 축하를 했다는 기록은 하였던 효소왕(孝昭王)의 적통성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에서도 확인된다. 그 결과 위용설(爲龍說)은 문무왕이 바다에 늘 머물면서 나라를 돕는다는 이야기로 널리 퍼졌다.

그런데 위의 ‘사증기」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왜병의 진압에 관한 것이다. 삼국통일 시기의 왜국은 문무왕이 격정할 정도의 국력을 지니지 못했다. 백제 부흥을 위해 3만 척의 배를 출병시켜 나당연합군에게 크게 패했던 왜국이 신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력과 침입을 지니지 못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증기」에는 이같은 기록들이 부가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삼국통일



문무왕은 감은사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신문왕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 완공했다. 사진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문무왕의 위신력은 일연 당시

왜국의 움직임 고려 만들어낸 설화 추측

시기의 기록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연(一然) 당시 왜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문무왕의 위신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 국민들의 민족적 연대감 내지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를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불교나 불타의 위신력과 결부시켜 외침을 이겨내기 위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다.

문무대왕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었다면 나라를 침범하는 대상이 상정되지 않을 수 없다. 동해에 자리한 문무대왕릉을 염두에 둔다면 외적은 왜국을 이은 일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려 당시 일본은 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에 이은 가마쿠라(鎌倉)시대를 열면서 새롭게 부상하게 된다. 종래의 한반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열도의 자립과 대륙 문물의 적수입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게 된다. 그들은 당시의 중심 세계관이었던 불교조차도 반도에서 수용하지 않고 인도와 중국을 거쳐 곧바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는 ‘삼국불법연기사관」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승려 교연(覺然: 1240-1321)은 72세에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統緣記)>

이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감은사는 문무왕이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승하하자 그 아들인 신문왕이 낙성한 것이라는 사증기의 기록을 더 신뢰할 수 있다. 동해에 대한 문무왕의 깊은 관심은 ‘문무왕비문」의 ‘파경진씨(波鯨津氏)와 ‘분골경진」(粉骨鯨津)이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문무왕은 ‘경진」(氏)이 동해(神)임을 알고 스스로 동해 용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의 ‘속전」과 ‘사증기」 후반에 보이는 ‘개」(蓋) 이하는 ‘사증기」와 달리 <삼국유사>의 찬자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의 이어나 인식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향인은 지금 대왕암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에서처럼 ‘향인」은 당시 사람들이자 <삼국유사> 찬자뿐만 아니라 이 설화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위」나 ‘돌」 앞에 붙은 ‘대왕」은 문무왕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오히려 대왕암의 ‘대왕」은 이후 여러 왕들에게도 가탁되어 왔음을 시사해 준다. 동해신에 대한 믿음은 문무왕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울산 앞의 대왕바위를 비롯해 전국 바닷가 곳곳에 살아있는 다수의 대왕신(大王神) 혹은 대왕신앙(大王信仰)은 미추이사금(3년, 264)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망해」(望海) 의식을 치른 이래 지속되어온 동해신에 대한 경건한 의식에서 비롯되고 계승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무왕에 대한 신앙 역시 이러한 망해 의식의 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감은사(感恩寺)의 ‘감(은)」은 그 소

(1311)를 저술하여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3. 믿음과 상징

짧은 시간대로 잘라 보면 역사적 팩트(사실)와 문학적 상상은 대립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긴 시간대로 걸쳐 보면 문학적 상상과 역사적 사실은 상호 교섭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복선 위를 달리는 두 열차가 나란히 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간이역에서 만나는 것처럼 ‘사실」과 ‘상상」은 종종 해후하기 마련이다.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의 영역이 국부적이라면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설화는 통합적이다. 인간의 역동적인 삶의 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는 한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던 문무왕의 유언은 기록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문왕이 부왕을 바다 속의 대왕암에 뼈를 묻거나[藏骨] 뼈를 뿌렸는 지[散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기록에 의거해 짐작해 보면 문무왕은 ‘동해 입구」의 교외 ‘궁문 바깥 뜰」에서 화장되어 그 뼈가 무덤이 대왕암 위에 뿌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장사를 치른 이들의 의식 속에는 나라를 보호하는 용이 되겠다고 한 대왕의 유조가 대왕암 위에 뼈를 뿌리는 내내 끊임없이 메아리쳤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었다는 전설은 그의 승하

부처의 힘으로 왜군 막고자 감은사 창건 신문왕이 부왕 뜻 이어받아 완공해

리인 ‘감」을 취한 것이니 곧 신(神)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은사는 동해신(용)을 모시기 위한 절이었다. 나아가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해중릉으로 제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해신인 용신을 모시기 위한 무덤이었다. 예로부터 용인 ‘미리」 혹은 ‘미르」 또는 ‘미륵」은 ‘황제」 또는 ‘왕」을 상징하여 왔듯이 대왕암은 죽어서 호국용이 되어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을 기리기 위한 곳이며, 동시에 감은사는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인 용의 지킴을 받는 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이 땅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금도 면면히 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무왕이 대왕암에 묻히고자 한 까닭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을 믿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던 이유 역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역사와 문화의 한복판에 상하의 존성과 상호존중행을 역설하는 불교가 있었다.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나라 지키는 큰 용되어 불법 받들겠다” 신문왕 부왕 뜻 받들어 바다에 뼈 뿌려

교의 궁문[庫門] 바깥 뜰[外庭]에서 서국(인도)식으로 불[火]로 태워[燒葬]장사지내라”고 하였다. 그는 장례의 장소와 법식에 대해서까지 조직(制勅)을 내려 놓았다.

여기서 교외의 ‘궁문 바깥 뜰」이란 과연 어디를 가리킬까. 대왕암을 해중릉(海中陵)으로 보는 이들은 ‘고문의정」을 경주시 배반동(排盤洞)의 능지탑(陵只塔)이 있는 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들은 능지탑의 유구가 탑묘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출토된 탄편(炭片)과 인근에 자리한 사천왕사에서 문무왕비편(文武王碑片)이 나왔고, 비가 꽃혀진 귀부의 거북머리가 대왕의 탑묘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신라 사람들이 문무왕의 화장터를 그냥 방치할 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이곳의 지명인 ‘능지」(陵只)가 『동경잡기』에 나오는 ‘능지」(陵旨)와 동일하며, 능지탑이란 ‘능의 탑」을 가리키고, 마을사람들이 이 일대를 ‘고문뜰」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탑묘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이곳은 평소 검소한 장례를 원했던 문무왕의 유조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①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②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④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⑤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